

여호수아 2

(수7:1,4,5)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여리고에서는 승리했던 이스라엘이 군사 3,000명만 가도 쉽게 이길 것이라 했던 아이성 싸움은 실패한다. 전략의 부재가 원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원인이었다.(수6:18,19) 실패의 원인에는 항상 영적 문제가 숨어있다. *글로벌 경제위기, 북한의 핵위협, IS, 보코하람 등(삿3:4) (수7:6)

·실패 앞에서 먼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다. 여호수아도 가장 먼저 옷을 찢고 여호와와 궤 앞에 섰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고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다. 진정한 회개에는 세 가지의 요소가 있다. 먼저 지적 요소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이고, 둘째는 정적 요소인데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슬픔과 탄식이 있는 것이고, 셋째는 의지적 요소로 잘못된 길에서 구체적으로 돌아서는 것이다.

·그들은 아간의 범죄를 발견하고 그가 숨겼던 물건을 찾아내어 불태웠고 아간은 돌로 쳐죽였다. 회복을 가져오는 진정한 회개는 잘못된 길에서 구체적으로 돌아서는 것을 포함한다.

(수8:1,2)

·철저한 회개 후에 하나님은 삶을 회복시키신다. 전투하는 방법까지 알리신다. 아이성 사건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데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만(롬 7:15) 그럴 때 얼른 회개로 처리하면 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선한 삶을 살 수 없다. 살다보면 반드시 실수하는 때가 오는데 그 때 할 일은 그저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구하는 것 뿐이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신다.(요일1:9)

·그리고 회개한 후에는 더 이상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죄책감에 빠지거나 어둠에 빠져 있어서는 안된다.(빌3:13) *화장실에서 뒤처리 한 후 할 일

(수9:3,6,11,14,15)

·기브온 거민들이 헤어진 전대와 찢어진 포도주 부대를 들고 와서 화친을 청하며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될 것을 다짐했을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그들과 조약을 체결한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는데 내 편할 대로 결정하면 안된다. 항상 하나님께 뜻을 묻고 분명한 사인이 있을 때 움직여야 한다.

·당장에 좋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 이루는데 방해가 될 것 같으면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 뚝은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소알 땅을 골랐지만 나중에 멸망을 당했다.(창13:10; 롬8:6)

*풀무학교(두레마을)의 직장 선택기준은 남들이 안가는 곳, 안하는 일 (수10:3)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왕과 에글론 왕과 함께 남부 연합군을 결성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한다.

(수11:1,4,6)

·하솔 왕 야빈이 가나안 북부의 연합군을 결성하여 해변의 모래보다 많은 수의 군사를 이끌고 메롬 물가에 진을 쳤다.

·사탄이 연합해서 나타나면 웅장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게 진짜 겁나는 일 같지만 알고 보면 이 사람들이 다 함께 와서 몰살해주는 일이다.

·어차피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데 경제 훈련, 사람 훈련 등 받아야 할 훈련들이 많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꺼번에 받게 하시는 것이 '속성 코스'다.

*'설상가상(雪上加霜)'이 아니라 '단기 속성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겪는 일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 훈련하시느라고 주시는 시험이고,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는데 재물로 사용되어질 일들이다.

·감사한 것은 어떤 시험도 사실은 다 감당할 시험이고, 나중에 보면 다 피할 길이 준비된 시험이다.(고전10:13) *시험 때 할 말은 '괜찮습니다!'(왕상2:1)

(수14:12)

·12장서 부터는 땅을 분배하는 내용인데 그 중에 갈렙은 철병거로 무장한 아낙 자손들이 사는 산지를 달라고 한다.

·갈렙의 나이가 85세인데 이제 조금 쉬어야 겠다 소리가 나올 법할 때도 그런 도전을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고백 때문이다.

(수1:8)

·결국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할 일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흔들리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항상 여호와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일이다.(롬10:17) *이스라엘 왕들이 규례대로 살기위해서 할 일(신17:16-19)